

정력승배가 계속되는 한, 스파르가눔은 영원할 것이다

70, 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채변검사의 추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당시 우리는 '채변봉투'로 불리는 흰 봉투에 대변을 담아냈고, 결과에 따라 약을 먹었다. 다행히 양성자에 당첨된 적은 없지만, 약으로 인해 사망한 회충 한 무더기를 대변을 통해 배출하는 건 어린 학생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으리라.

그때 한창 잘나갔던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두비니구충)은 모두 흙을 통해 인간에게 전파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의 대변을 비료로 쓰고,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 그런 기생충들이 전성기를 누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위생수준이 몰라보게 달라진 요즈음엔 흙 속에 있던 알이 사람 입 속으로 들어오는 건 극히 드문 일이 되었고, 생선회 등의 음식을 통해 전염되는 기생충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기생충들은 소위 식용동물을 통해 감염되며, 21세기의 패권을 노리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3. 스파르가눔

스파르가눔은 참 재미있는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은 개나 고양이를 종숙주로 삼으며, 사람에게 감염되어도 어른으로 자라지 못한다. 청소년에게 있어 탈선과 방향이 심각한 문제이듯, 어른이 되지 못한 스파르가눔은 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킨다.

주로 피하조직을 침범하는데, 희한한 것이 스파르가눔이 잘 침범하는 부위가 남자에서는 음낭, 여자에서는 유방이라는 점이다. 이 역시 성에 대한 호기심이 팽배한 청소년의 심리와 비슷하다.

이 기생충이 피부 등지에만 머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가끔 뇌, 척수, 눈 등 인체에 중요한 장기를 침범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그렇다고 고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피부에 머무는 경우 움직이는 뭔가가 있

다는 느낌을 주거나 기껏해야 조금 아픈 정도에 그치는 반면, 뇌를 침범하면 두통을 유발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우리 나라는 뇌 스파르가눔증의 보고(寶庫)로,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35개의 증례 중 27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예다. 유독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뇌 스파르가눔증이 많은 이유가 뭘까?

이 기생충은 뱀을 먹고 잘걸린다. 모든 뱀에는 스파르가눔이 들어 있다. 정력에 좋다면 뭐든지 먹는 풍조가 있는 우리 나라이니 뱀을 날로 먹는 것도 그리 신기한 일은 아니며, 스파르가눔 환자가 꾸준히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뱀이 정력에 좋은 이유가 '굵고 길어서' 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뱀의 긴 교미시간 때문 이란다. 그렇다고 해서 뱀을 먹는 게 이해되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인슈타인의 뇌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진리를 생각한다면, 정력을 추구하다 스파르가눔에 걸리는 건 어찌 보면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다.

그런데 뱀을 잘 안 먹는 여자들은 이 기생충에 왜 걸릴까? 스파르가눔은 물벼룩이 제1 중간숙주이고 개구리, 뱀이 제2 중간숙주로, 사람은 이 중 어느 것을 먹더라도 걸리게 마련이다. 그러니 뱀을 먹지 않더라도 물벼룩이 든 물을 먹으면 스파르가눔에 걸릴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산에서 나는 약수물을 거의 먹지 않는데, 약수터마다 커다란 물통을 들고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보면 약간은 걱정이 된다. 아직까지 단체로 스파르가눔에 걸렸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약수물에 물벼룩이 없던지, 있더라도 기생충을 가진 물벼룩의 빈도수가 낮은 모양이다.

이 기생충의 탁월함은 높은 저항성에 있다. 기생충의 취약점이라면 약에 잘 듣는 것인데, 이 기생충은 디스토마와 촌충의 천적인 프라지판텔에 전혀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외과적 수술을 통해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뱀을 먹고 고환이 커진다고 좋아하던 사람

들, 나중에 고환 한쪽을 잘라 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하루종일 방사선을 쬐어도 죽지 않는 걸 보면, 과연 21세기의 강자답다. 우리 사회에서 정력에 대한 숭배가 계속되는 한, 스파르가눔은 영원할 것이다.

4. 광절열두조충

이 기생충은 촌충의 일종으로, 긴 것은 10미터나 된다. 이렇게 긴 놈이 기껏해야 7미터가 안 되는 사람의 소장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덩치에 비해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더욱 놀랍다. 약을 먹여 기생충을 뽑아 내면 그제서야 “어쩐지 속이 거북하더라”라고 할 정도다. 기생충의 끝 부분이 떨어져 항문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므로, 변을 보고 난 뒤 변기에 앉은 채로 물을 내려버리면 자신이 이 기생충에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다.

대변은 의외로 많은 걸 우리에게 말해 준다. 자신이 그날 뭘 먹었는지는 물론이고 위장관 내에 출혈이 있는지, 담즙 분비가 적절히 되는지 대변을 보면 알 수 있다. 아주 운이 좋다면 광절열두조충의 조각이 꿈틀거리는 걸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니 조금 더럽더라도 물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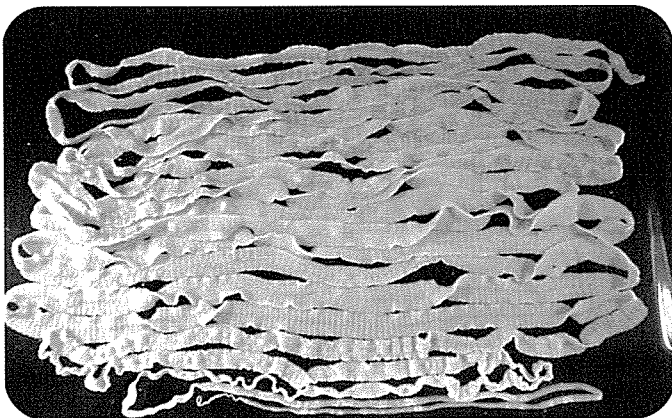
리기 전 자신의 변이 어떤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변을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 사랑해 주겠는가?

광절열두조충은 농어나 송어, 연어 등을 회로 먹다가 감염된다. 훈제연어를 먹고 걸릴 수도 있다. 이 생선들은 모두 값이 비싸다. 과거의 기생충이 가난한 사람의 질병이었던 데 반해, 21세기에 떠오르는 기생충들은 대개 돈 많은 사람을 공략한다. 이런 사람들의 뱃속에 들어가면 최소한 영양결핍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기생충에 걸리고 나서 “나같은 인텔리가 웬 기생충?”이라며 놀라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 그건 자신이 ‘가진 자’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간디스토마나 페디스토마 같은 것들은 ‘어느 생선에 얼마나 들어있는가?’에서부터 생물학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광절열두조충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염원이 되는 생선이 비싸기 때문이다. 기생충 실험을 하기 위해 연어 100마리를 사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 덕분에 이 기생충은 어느 생선에 있는지도조차 베일에 싸여 있고, 간흡충처럼 실험대상이 되는 일도 거의 없다.

커다란 덩치에도 불구하고 약 한 알이면 그대로 죽어 버리는 나약함과, 비싼 생선에만 존재하는 귀족적 취미가 광절열두조충으로 하여금 패권을 차지하는 걸 방해하지만, 그렇다고 이 기생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10미터에 달하는 몸집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72**

서민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사진: 광절열두조충〉